경리단길 창조계급의 유입과정과 문화경관 형성요인[†]

양희은* · 손용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The Inflow of the Creative-Class and Forming of Cultural Landscape on the Kyunglidan-Gil

Yang, Hee eun* · Son, Yong-hoon**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s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With the recent 'Creative economy' and 'Cultural prosperity' coming to the fore as a new code to build up a city or a region, it is necessary to focus on strengthening the regional creative capacity as well as developing spontaneous regional culture. In such trend this research aims to explore the Kyunglidan-gil, Seoul, Korea in which creative-class are appearing autogenously in clusters and forming new cultural landscape, to identify the factors of their accumulation and changing aspect of cultural landscape.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purposes: First, Investigating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Kyunglidan-gil's landscape. Second, considering the process of the creative-class being flowed into the Kyunglidan-gil as the subject leading to the modification of the region. Third, their activity was analyzed to consider the unique aspect of forming the cultural landscape at the Kyunglidan-gil. Regarding why the creative-class should flow in, results of the study drew five factors including region in issue compared to inexpensive rents, coexistence with nature, quiet atmosphere seeming isolated from the urban confusion, location possible to test and share individual materials one likes, and a site with synergy effect of activity through the network with acquaintances. Also, five characteristics of cultural landscape forming by the people's activity were drawn - space of communication for increasing creativity, temporary and flexible spatial use, expression of one's identity and taste, distinguishing, and positive use of the existing facilities. Like this, by exposing the 'creative-class', a subject of the leader in changing process of the Kyunglidan-gil, this research identified the aspect of forming cultural landscape.

Key Words: Creative-Class, Cultural Landscape, Itaewon2-Dong, Analyzing Verbal Accounts, Indepth Interview

국문초록

최근 '창조 경제', '문화 융성' 등이 도시 및 지역 성장의 새로운 방법론으로 부상하면서 문화 산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Kim, 2013). 또한 지역의 창조역량을 강화하고 자생적이며 내발적인 지역문화 발전을

[†]: 이 논문은 2013년도 BK21 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Corresponding author: Hee eun Yang,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s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1-921, Korea, Tel.: +82-10-7499-5117, E-mail: dkskcka@gmail.com

위한 정책마련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Ryu *et al.*, 2012). 이러한 흐름에서 자생적으로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창조계급들이 집적하여 나타나며, 새로운 문화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경리단길을 고찰하여 그 집적요인 및 문화경관의 변화양상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최근 급격한 변화과정에 있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2동 회나무로(경리단길)를 연구함에 있어, 인근 지역인 이태원1동의 상업시설 포화상태로 인한 상업 공간의 확장 때문이라는 기존의 인식과는 달리 경리단길에 유입되고 있는 ‘창조계급’이 지역의 변화를 직·간접적으로 유도하며, 지역의 문화 및 경관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10년대 일본군 기지 조성에 따른 영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는 과정을 문화경관형성 과정으로 보고, 대상지 경관 변화의 역사적 맥락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둘째, 경리단길의 변화를 주도하는 주체로서 창조계급이 경리단길에 유입된 과정을 고찰하고, 어떠한 요인에서 경리단길에 유입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셋째, 이들의 활동이 지역의 문화 및 경관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가설 하에 이들의 활동을 분석하여 경리단길의 독특한 문화경관형성 양상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창조계급의 4집단(디자이너 및 건축가 집단, 독립 갤러리 및 카페(음식점)+갤러리 운영자 집단, 예술가 집단, 에스닉푸드 음식점 운영자 집단)들이 경리단길에 유입되고 있는 과정을 생생하게 고찰하기 위하여 심층인터뷰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이를 객관적이며 구조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위해 Ratner(2002)가 제시한 인터뷰 대화내용 분석의 4단계를 활용하였다. 연구의 결과 창의적 문화산업 종사자가 경리단길에 유입되는 요인으로는 ‘저렴한 임대료에 비해 이주화되고 있는 지역’,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 ‘도시의 혼잡스러움과는 격리된 듯한 호젓한 분위기’, ‘자신이 좋아하는 개성 있는 소재를 시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장소’, ‘지인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소’라는 5가지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또한 이들의 활동으로 형성되고 있는 문화경관의 특징으로는 창의성 증진을 위한 소통의 공간, 일시적이며, 유연한 공간의 활용, 자신의 정체성 및 취향의 표현, 구분짓기, 기존 시설의 적극적 활용이라는 5가지의 특징이 도출되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경리단길의 변화과정을 주도하고 있는 주체인 ‘창조계급’을 드러냄으로써 경리단길 문화경관이 형성되고 있는 양상을 밝혀냈으며, 문화산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고찰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자생적으로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창조계급이 집적하여 나타나는 실체의 대상지를 연구함으로써 실증적인 유입요인 및 지역의 변화양상을 밝혀내었다.

주제어: 창조계급, 문화경관, 이태원2동, 구술분석, 심층인터뷰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창조경제’, ‘문화융성’ 등이 국가 성장의 새로운 방법론으로 부상하면서 문화 산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Kim, 2013). 또한 지역의 창조역량을 강화하고 자생적이며 내발적인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마련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Ryu, 2012). 이러한 흐름에서 자생적으로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창조계급들이 집적하고 있는 경리단길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그 집적요인 및 그로 인한 지역의 변화양상을 밝히고자 한다.

경리단길(서울 용산구 이태원2동 회나무로)은 서울의 ‘핫플레이스’로 주목받고 있다. 신문, 잡지, TV프로그램 등에서 맛집을 위주로 경리단길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점차 관광객이 늘어가고 있다. 이태원2동은 용산미군기지과 남산의 주변에 입지하며 현재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최고 4층 16m 이하로 건축물 신축을 규제받고 있다. 때문에 소규모 필지와 기존 건축물이 유지되어 있고, 오랫동안 거주하며 가게를 운영하는 토박이들의 비율이 높다(Yang *et al.*, 2012). 이러한 경리단길은 2008년경부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겪고 있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이

현상을 단순히 이태원1동의 상업시설 포화상태로 인한 상업 공간의 확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곳에 유입되고 있는 ‘창조계급’이 지역의 변화를 직·간접적으로 유도하며, 지역의 문화 및 경관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2가지의 목적을 갖는다. 첫째, 경리단길의 변화를 주도하는 주체로서 창조계급이 경리단길에 유입된 과정을 고찰하여 창조계급이 경리단길에 유입된 주된 요인을 밝히는 것이다. 둘째, 이들의 활동을 분석하여 경리단길 고유의 문화경관형성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인 경리단길은 이태원2동 회나무로(경리단길) 850m 및 인접골목을 공간적 범위로 한다(Figure 1 참조). 이 길의 정식명칭은 회나무로이지만, 육군중앙경리단이 회나무로 초입에 자리 잡고 있어 경리단길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본 연구의 심층인터뷰의 대상은 위의 공간적 범위를 근거지로 하여 활동하고 있는 창조계급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의 역사적 맥락을 고찰하기 위하여 이태원2동에서 40년 이상 거주한 주민 또한 인터뷰 대상으로 하였다.

Figure 1. Location of Kyunglidan-gil

3.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창조계급이 경리단길에 유입되고 있는 과정을 생생하게 고찰하기 위하여 심층인터뷰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심층인터뷰는 연구대상자들의 일상적 경험과 그 생생한 의미를 포착하기 위한 연구를 위해서는 매우 유용한 연구방법이다 (Morgan, 1993; 1994, Kvale, 1996; Kim *et al.*, 2000; Kang *et al.*, 2007; Kwon, 2013). 이를 통해 정량적 연구를 통하여 파악할 수 없는 연구대상자들의 심리, 문화, 동기 등의 심층적이며 다면적인 유입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과거 경리단길의 모습을 관찰할 수 없으며, 역사문헌 및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경리단길 변화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면담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기존 이론이나 가설을 검증하는 차원이 아니라 문제를 탐구하고, 연구대상자 및 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분석하는 연구이기에 심층인터뷰 연구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인터뷰를 통해 얻어낸 자료의 분석은 객관적이며, 구조적인 이해를 위해 Ratner(2002)가 제시한 구술분석의 4단계(Figure 2 참조)를 활용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선행연구 고찰

2001년 호킨스의 창조산업, 2002년 플로리다의 창조계급에 대한 개념이 소개된 이후 국내에서도 창조계급과 관련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Choi(2010)는 지식기반 경제가 발전해 갈수록 창의성이 더욱 더 중요시되며, 순수 예술과 문화 활동도 지역경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혀내었다. Lee(2008)는 창조산업의 집적화와 가치사슬에 따른 분포특성을 분석하여 서울의 창조산업이 특정지역으로 집적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Kim(2010)은 미국, 유럽 등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창조도시 3T지수를 국내 도시에 적용하여 전국 시·군의 공간분포특성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도시분야에서 창조계급에 대한 연구는 광역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창조산업 및 창조계급의 입지현황을 밝혀내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창조계급의 유입에 따라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지역인 경리단길을 대상으로 하여 구체적인 창조계급의 유입요인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이는 광역적인 도시차원의 정량적 연구에서는 살펴볼 수 없었던 창조계급 개개의 구성원들의 미시적 이야기를 바탕으로 지역의 변화를 추적 및 고찰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창조계급과 창조산업

최근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략으로 '창조경제'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다. 창조경제에서는 창조력이 중요한 경제적 수단이기 때문에, 창조력의 원천이 되는 사람 즉, 창조계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보다 다양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창조경제'는 2001년 호킨스가 주장하였으며, '창조계급'은 2002년 플로리다가 처음 사용하여 현재까지 문화산업, 콘텐츠산업 등에 종사하는 인적자원에 대한 연구의 이론적 토대가 되어왔다.

플로리다가 주장한 창조계급은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 특히 창조적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머, 음악가, 예술가, 과학자, 교사, 연예인, 디자이너, 건축가 등 '순수 창조의 핵'이라 불리는 전문직 종사자들과 관리직, 사업경영 및 재정운영직, 법률직, 금융직, 건강관리직 등 광범위한 지식집약형 산업에 종사하는 '창조적 전문가'들을 말한다. 즉, 이들의 경제적 기능은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 독창적 내용을 창조하는 것이다(Florida, 2002). 호킨스는 '창조산업'을 창조성을 기반으로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사업 활동들로 정의하고 있다(Howkins, 2001).

호킨스와 플로리다의 '직종'을 토대로 한 분류를 바탕으로 각 나라마다 다른 창조산업의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 명칭도 '문화산업', '콘텐츠산업', '창조산업', '저작권 산업' 등으로 서로 다르다. 국내의 분류는 '창조성'을 경제적 기능으로 하는 업종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호킨스가 제시한 창조산업의 정의를 바탕으로 창조

Figure 2. Procedure for analyzing cultural themes in verbal accounts
Source: Ratner, 2002

산업의 범위를 보다 유연하게 정의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경리단길 창조계급이 종사하는 업종을 분류하고자 하며, 이는 크게 디자인 및 건축, 예술, 공연전시, 음식으로 나뉜다.

3. 창조산업의 집적현상

플로리다는 창조적 사람들은 관용적 도시 환경을 지닌 특정 지역에 집적하여 나타나며, 그들의 창조적 직업 활동과 창조적 상호작용의 결과, 그 지역의 혁신적 기업 활동, 문화산업의 육성, 경제성장이 가능하게 된다고 주장한다(Kim, 2012). 나아가 이러한 창조계급이 집적하는 도시의 특징으로 두터운 노동시장, 유연한 생활양식, 사회적 상호작용, 다양성, 진정성, 독자성, 지역의 질 등을 지목한다. 이처럼 창조계급은 특정지역에 집적하여 나타나며, 창조계급의 특성과 이들이 선호하는 도시환경에는 특정한 공통요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창조산업 또한 특정지역에 집적하여 나타나는 현상을 보인다. 프랫(Pratt)은 창조산업이 일반산업분야에서 보이는 생산→분배→교환→소비로 이어지는 가치사슬의 구조가 창조산업에도 존재하며, 이를 창작→제작→유통→소비 및 교환의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Pratt, 2004). 프랫의 창조산업의 가치사슬이론을 바탕으로 이희연(Lee, 2008)은 가치사슬 별 창조산업들이 특정지역에 집적되어 나타나는 현상에 주목하여 '창작'과 '소비 및 교환' 업종의 도시 내 분포패턴이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이는 창조산업이 도시 내 특정장소로 집적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창조력의 투입이 요구되는 '생산과정'과 창조적 결과물을 구입하는 '소비과정'이 특정장소로의 집적을 통해 다원적이고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리단길 또한 현재 생산의 과정을 담당하는 업종과 소비의 과정을 담당하는 업종이 동시에 유입되는 과정을 보이고 있다. 즉, 창조적 인적자원이 생산과 판매의 활동을 하며, 동시에 창조적 생산자가 창조적 결과물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창조력을 재충전하는 선순환 과정이 이루어지며, 지속적으로 경리단길에 창조산업이 유입될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III. 대상지 이해

1. 역사적 맥락

이태원 2동이 속한 용산지역은 고려시대 원간섭기부터 몽고군의 병참기지가 조성되었을 정도로 군사시설과 연관이 깊다. 이태원2동 서측에 위치한 용산기지는 일제가 1904년 8월 15일 한국 주차군사령관이 한일의정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용산

Figure 3. City map of Yonsan

Source: Seoul Museum of History, 1927

300만 평 등 총 975만 평의 토지를 강제 수용하여 1908년 일본 군기지로 조성된 이후, 현재까지 미군 군사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이는 오랜 옛날부터 수로를 통해 전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여 교통의 요지였던 성격과 무관하지 않으며, 철도의 건설로 군용물자의 수송이 편리한 용산이 전략적 요충지의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군사기지를 설립하며 이태원2동 대림아파트 자리에 사격장터가 건설되었으며, 원래 이 자리에 위치하던 이태원마을이 현재의 이태원1동 이태원시장과 해밀턴호텔 주변 지역으로 강제 이주되어 이태원리를 형성하게 된다(Figure 3 참조). 이와 같은 군사기지 조성으로 이태원마을은 북쪽과 동쪽이 남산과 버티고개로, 서쪽과 남쪽이 군사기지로 가로 막힌 지리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Seoul Museum of History, 2010). 1945년에 이르러 모든 군사시설이 미군 관리 하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한국전쟁 이후 본격적으로 용산기지가 미군기지로 이용되었다.

일제 강점기 동안 현재의 이태원2동 지역은 일본인 소유의 복숭아 과수원이 드넓게 조성되어 있어(Figure 4 참조) 대다수의 주민들이 과수재배 관련 노동일에 종사하였으며, 주거지로서의 기능은 없었다. 이태원2동에 본격적으로 주거지가 형성되기 시작한 시점은 한국전쟁 이후 만초천의 지류(현재는 북개되어 사라짐)를 따라 판자촌이 형성된 시기부터 이다. 점차 인구

Figure 4. Korea city plans

Source: Seoul Museum of History, 1946

가 늘어나면서 생활용품 상가와 구멍가게들이 자리잡게 된다(시장 상인인터뷰, 2013). 또한 1963년 사격장 터에 군인아파트가 건설됨에 따라 외국인 집단거주지가 형성되며, 본격적인 주거지화가 이루어졌다. 1967~1968년에는 현재의 재래시장 길과 경리단길 주변을 흐르던 만초천 지류가 복개되었으며, 1970년대에는 2층 이상의 연립주택들이 건설되는 등의 환경정비사업이 이루어진다. 이후 서울로 올라온 이주민들이 이 연립주택에 정착하면서 서울의 가장 대표적인 이주민 초기 정착지가 된다. 즉, 현재와 같은 이태원2동의 경관은 1980년대에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Figure 5 참조). 이러한 이태원2동은 용산미군기지와 남산으로 인해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최고 4층 16m 이하로 건축물 신축을 허용하고 있다. 때문에 환경정비사업이 이루어진 1970년대의 필지와 건축물들이 현재까지 유지되었고, 지역 토박이들의 비율이 높다.

2. 현재의 변화양상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태원2동은 이태원1동과 비교해 발전이 더딘 고립된 주거지역으로 남아 있었으나, 2009년경부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경리단길과 면해 있는 상업시설의 업종변화를 조사한 Figure 6을 보면 2009년 97개(57%)였던 주민편의시설이 2013년 80개(46%)로 감소하였으며, 음식점의 수가 2009년경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3년 36개(20%)까지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Figure 7에서 나타나듯 일반식당은 감소한 반면, 전문 레스토랑의 개수는 늘어 전문 레스토랑의 수 증가가 전체 음식점 수의 증가에 기여했다. 또한 디자인 사무실 및 공방 또한 7개에서 10개로 증가하였다. 한편, 2009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업종이 출현하기도 하였는데, 2009년 한 개도 없었던 카페가 등장하기 시작해 2013년에는 6개로 증가하였으며, 갤러리 또한 2013년 2개가 출현했다. 이와

Figure 6. The change of commercial facilities by type of industries on Kyunglidan-gil(2009~2013)

Legend: etc. residential entertainment fashion-related gallery design-related café restaurant residents' convenient

Figure 7. The change of type of restaurants on Kyunglidan-gil (2009~2013)

Legend: ordinary restaurants specialty restaurants

같이 경리단길은 2009년 이후 전문레스토랑 및 문화산업 업종이 기존 상업시설을 대체해 나가며 변화하기 시작해, 최근 그 변화의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3. 창조계급의 유입과정

현재 경리단길에 유입되고 있는 창조계급은 그 업종으로 구분하였을 때 크게 에스닉푸드 음식점 운영자 집단, 디자이너 및 건축가 집단, 예술가집단, 독립갤러리 및 갤러리 카페 운영자 집단의 4집단으로 구분(Table 1 참조)할 수 있으며, 각 집

Figure 5. 4 past and present of Itaewon 2-dong'

Table 1. Creative class groups

Divisions of the creative class	Content
Ethnic food restaurant manager	Group displaying new dishes based on the challenging spirit e.g. Brazilian dishes in Jamaica and Canada, cupcake in monster theme
Designer and architecture	Group of editing, interior and hat designer and architecture at architectural firm
Artist	Group of pure arts author including artist and theater actor
Managers of independent gallery and gallery café	Group of manager who introduces new attempts or work by new author, and manager using the space of café or restaurant for gallery

단 별 유입과정은 아래와 같다(Figure 8 참조).

1) 에스닉 푸드 음식점 운영자 집단

2008년 핫토리 키친이 오픈하며, 경리단길 최초로 에스닉 푸드 음식점이 유입된다. 이후 2010년 경리단길 초입에 T.G 브런치 카페, BIG MUG 카페가 오픈하고, 핫토리키친이 경리단길 초입으로 자리를 옮겨 재개업하면서 경리단길 초입의 변화 분위기가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한다.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2011년부터 경리단길 초입에 에스닉푸드 음식점과 카페들이 자리잡으며, 골목길 안쪽으로도 에스닉푸드 음식점들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2) 디자이너 및 건축가 집단

2007년 스트라이크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사무실이 자리를 잡은 후 젊은 디자이너 및 건축가 집단이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경리단길에 먼저 자리잡은 1세대 디자이너 및 예술가들의 인맥을 통해 또 다른 디자이너들이 유입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흐름과는 별개로 경리단길에 들어온 디자이너 및 건축가 또한 존재한다. 또한 2011년에 재래시장 옆 골목인 녹사평대로 54길에 320카페+디자인사무소가 자리 잡은 후 이들의 인맥을 통해 새로운 디자이너 집단이 유입되고 있다

3) 예술가 집단

이태원2동은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아 독특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변화의 시기 이전부터 몇몇 예술가들이 거주해 오고 있었다. 그런데 2010년 이태원2동을 중심으로 예술가(회화작가, 사진가, 음악가, 설치작가 등)들이 만나 이태원주민일기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이들의 활동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들은 이태원주민일기에 이어 이태원주민시장, 이태원주민학교 등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잇달아 시도하며, 지역주민과 예술가 간의 관계 형성을 시도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예술가로서의 활동과 음식점 및 바 등의 영업을 병행하는 예술

Figure 8. 5 Location of the creative class

가들이 생겨나며, 경리단길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4) 독립갤러리 및 갤러리 카페 운영자 집단

2010년 RUFxxx가 경리단길 남측 주택가 골목에 자리를 잡으며, 공연과 전시, 카페 공간이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오픈하였다. 이후 2011년 카페와 갤러리 공간을 함께 운영하는 테이크아웃드로잉이 이태원2동 점을 개업하며, 예술가들의 유입을 촉진시켰다. 2012년에는 독립갤러리 윌링엔델링이 오픈하게 되어 경리단길 내에서 예술가들의 전시 및 작품 활동이 점차 활발해지게 되었다.

4. 창조계급 유입에 따른 경리단길 현황

A지역은 경리단길의 초입으로 많은 방문객들이 오고가는 지

Figure 9. 4 districts of Kyunglidan-gil

역이기 때문에 상권 변화가 가장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구역이다. 창조계급이 종사하는 업종 중 상업성이 가장 강한 에스닉푸드 음식점이 몰려있는 지역이다. B지역은 완만한 경사가 시작되는 지역으로 상권의 변화는 미약하나 A지역의 급격한 상권변화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 C지역은 급경사로의 지역이기 때문에 방문객의 수는 A지역과 비교하여 적으며, 상권 변화의 흐름은 미약하다. 그러나 디자이너 및 건축가 집단이 운영하는 사무실 및 숙소 서서히 형성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D지역은 최소 3m의 좁은 폭을 가진 도로로 기존의 오래된 상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2011년 320카페+디자인 사무소가 개업한 후, 이들의 지인인 두 명의 디자이너가 유입되어 현재 이 골목에 세 개의 디자인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는 갤러리 카페가 들어오는 등의 변화를 겪고 있다. E지역은 이태원2동의 전형적인 주택가 골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2011년부터 사진가 장진우를 주축으로 하여 듀얼잡스들이 자신들의 작업과 음식을 소재로 다양한 시도를 벌이고 있는 골목으로 변화하고 있다.

IV. 창조계급 유입요인 및 문화경관 특성 분석

경리단길 창조계급들의 유입요인과 이들의 활동에 따른 문화경관 형성을 연구하기 위해 심층인터뷰 및 구술분석을 실시

Table 2. Progress of the In-depth interview

Divisions of the creative class	Names of the facilities	Note
Ethnic food restaurant manager	Monster Cupcakes , Porchetta, Salon Fried, Hattori Kitchen of Son ji-young, Ojisang , Hamburgsteak , Tócan	4/6
Designer and architecture	320café+design , J.Work, SCALE , S.E.L, Dozzari , Binmodiste, Shoes by Launching M. Strike Design , Tanello, ?(nameless)	5/10
Managers of independent gallery and gallery café	RUFxxx , Olea Kitchen & Grocery, WillingnDealing , Take out Drawing	3/4
Artist	Bailey , Seoul Salon, Chang Jin-woo Restaurant , Chang Jin-woo coffee house , Drinking Security	5/5

*Bold: The facility whose manager or artist had an in-depth interview
(Note: the number of interviewees/ a total number)

하였다. 심층인터뷰는 2013년 4월 7일부터 2013년 6월 8일까지 진행하였다. 경리단길 창조계급의 집단 분류에 해당하는 창조계급의 수는 '에스닉 푸드 음식점 운영자' 6명, '디자이너 및 건축가' 10명, '독립갤러리 및 갤러리 카페 운영자' 3명, '예술가' 5명이며, 이 중 심층인터뷰를 진행한 대상자는 에스닉 푸드 음식점 운영자 3명, '디자이너 및 건축가' 4명, '독립갤러리 및 갤러리 카페 운영자' 2명, 예술가 5명이다.

1. 창조계급의 유입요인

1) 저렴한 임대료에 비해 이슈화되고 있는 지역

(1) 구술분석 내용 및 과정

- (a) 종합적 주제: 저렴한 임대료에 비해 이슈화되고 있는 지역
(b) 중심주제 및 의미단위

- 다른 지역과 비교해 저렴한 자가

의미단위: [관리금이나 임대료가 합리적이었어요.][메인도로는 굉장히 비싸요. 안쪽에는 음식점 허가도 안나는 곳도 많고 해서 안쪽은 좀 싸구요.][원래 저 앞쪽에 자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 쪽에서 세를 갑자기 올려버려서...][이태원 중심가에 비해서 저렴하고...][임대료 부담이 적었죠.][별로 대단하지도 않은 곳에 관리금이 너무 많고... 이 자리는 중국집이었는데 지하에도 자리가 있고 싸기도 해서...]

- 향후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

의미단위: [도로도 있고, 하얏트 올라가는 길이라 이 곳도 팬층을 것 같아서...][기회를 봤죠. 국군경리단도 새로 확장하고, 용산공원도 생기면서 입구가 이쪽으로 생긴다고 하니깐요.][유동인구가 정말 많이 늘긴 했어요.]

(2) 유입요인 분석 내용 및 해석

경리단길이 속한 이태원2동은 일반 주거지로서 기능하며, 개발이 더딘 지역이고 따라서 임대료가 비교적 저렴한 지역으로 남아있다. 이 때문에 변화의 초기에 자리 잡은 사람들은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경리단길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또한 최근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임대료가 더욱 저렴한 이태원2동의 안쪽 골목 녹사평대로 54길, 회나무로 13길, 녹사평대로 46길에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들은 임대료가 저렴한 이유와 함께 최근 개발사업(육군중앙경리단확장 공사, 용산공원 조성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리단길의 기회요인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기회 요인에 대한 언급은 특히 에스닉 푸드 음식점 운영자 집단에서 많이 나타났고, 이는 다른 집단에 비해 지역 방문객의 수가 영업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2)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

(1) 구술분석 내용 및 과정

(a) 종합적 주제: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

(b) 중심주제 및 의미단위

- 도시의 편리함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

의미단위: [남산과 가깝잖아요.][여기서 보이는 이 남산의 느낌과 봄, 가을 색깔들이 너무 좋아서... 참 좋아요.][경관이 좋기도 하고...][교통이 편리한데 자연이 바로 옆에 있어서...][동물을 좋아하는데 개들이 정말 많아요.][도심을 좋아하는데, 너무 자연만 있는 변두리 지역은 싫고, 최대한 도심과 자연이 어우러진 곳을 찾았어요.][의도치 않게 보전되어있는 자연이 있어요.][서울에서 느끼기 힘든 자연, 바람, 공기가 있어요.]

(2) 유입요인 분석 내용 및 해석

이태원2동은 북쪽과 동쪽에 남산이 자리하고 있어 자연과 매우 인접하여 있다. 경리단길은 남산공원과 연결되어 있으며, 남산 일대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산책을 즐기는 이들의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이는 경리단길이 통행으로서의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는 목적지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도심 한가운데서 자연환경을 접할 수 있다는 점은 창조계급들이 경리단길로 유입되는 데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이태원2동 지역은 또한 강남지역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때문에 도심과의 근접성은 유지하면서도 도시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는 경리단길이 이들에게 매력있는 장소이다. 또한 이들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자연환경이 공존하는 경리단길의 독특함이 자신들의 창의성 증진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3) 도시의 혼잡스러움과는 격리된 듯한 호젓한 분위기

(1) 구술분석 내용 및 과정

(a) 종합적 주제: 도시의 혼잡스러움과는 격리된 듯한 호젓한 분위기

(b) 중심주제 및 의미단위

- 방문객, 주민들로부터 느껴지는 여유로운 분위기

의미단위: [로드샵들이 복잡하게 있는 곳과는 달라요.][이거 안 되면 죽어..라든가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사실 여기가 장사하기 좋은 곳은 아니죠.][돈이 있어서 여유롭다기보다 소소한 일상에서 여유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자연이 좋아서 남산을 다니는 감성적인 분들이 많이 찾아와서 좋아요.][신사동 가로

수길, 가회동 이런 곳들도 있지만 복잡한 것이 싫었어요.][뒤로 가면 다 주택가니까 여유를 볼 수 있고, 장사하는 곳이지만 동네느낌이 난다.][한적해서 내가 작업할 시간도 있고...]

- 60~80년대의 상점들과의 공존

의미단위: [아날로그적인 분위기가 있어요.][재래시장 안에 그럴싸한 카페도 있고, 옷가게도 있다. 그러다 갑자기 그 옆에 쌀집, 철물점이 있고...][정스럽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고...][이쪽동네가 오래된 동네라 예전의 서울, 한국적인 것도 많이 남아 있어서...]

- 주류의 흐름이 미치지 않았으며, 아직은 알려지지 않은 장소

의미단위: [제가 들어올 때만 해도 이곳은 아무 것도 없었어요.][오르막길이어서인지 여기는 개발하기 힘든 곳 같아요.][처음 올 때만 해도 아무 것도 없었어요.]

- 과거에 대한 추억과 변하지 않음에 대한 긍정적 인식

의미단위: [별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냥 내가 예전부터 산책을 즐기러 여유를 느끼러 나왔던 동네였어요.][아버지 차를 타고 등교하면서 아버지랑 얘기도 많이 했고, 그때 남산 길을 다닐 때의 기억이 너무 좋았어요.][우리 딸이 여기 처음 이사 왔을 때 그랬어요. 엄마 이 동네 왜 이래 시골 같아.][제가 원래 좋아했던 동네예요.]

(2) 유입요인 분석 내용 및 해석

창조계급은 바쁜 일상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는 경향을 보인다. 오히려 느리게 걸으며 산책하는 등의 일상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이들이 거주하고 활동하는 이태원2동의 분위기에 호감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판매 업종에 종사하고 있어도 방문객이 몰리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며, 많은 사람이 방문하지 않는 곳에 입지하여야 자신이 정성이 들어간, 또는 자신이 만들고 싶은 음식과 작품을 창출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창조계급은 발달된 도심과는 다르게 개발이 더디고, 60~70년대 상점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경리단길의 예스러운 정취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최근 유입된 상점과 아주 오래된 상점들과의 공존으로 인해 생겨나는 독특한 풍경이 이들을 유입시키는 요인 중 하나이다. 이는 남산과 미군기지가 이태원2동의 개발을 더디게 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복잡한 도심과는 구별되는 경관을 갖도록 하여 창조계급을 유입시키는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창조계급은 과거의 모습이 유지되어 있는 이태원2동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개발주의'에 대한 반발심이라기보다는 '흔하지 않다'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4) 자신이 좋아하는 개성 있는 소재를 시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장소

(1) 구술분석 내용 및 과정

(a) 종합적 주제: 자신이 좋아하는 개성 있는 소재를 시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장소

(b) 중심주제 및 의미단위

- 독특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방문하는 장소

의미단위: [이 동네에는 개성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감성적인 분들이 많이 찾아오죠. 사실 그냥 평범한 남자 분들은 여길 찾아오지 않겠죠.][배우, 뮤지컬배우, 디자이너, 공연기획자, 광고인들이 많이 찾아와요.][외국인들이 많아서 재밌죠.][아무래도 다른 동네에 비해 편안하고 자유롭죠. 외국인들 때문이기도 하고, 찾아오는 분들이 예술가, 작가... 이런 분들의 특성이 여유 있고, 즐기는 특성이 있어서...][외국인, 예술가 등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대해 수용이 가능하죠.]

- 내 공간이 좋아 시간을 내어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 장소
의미단위: [경리단길엔 메니아층이 많죠.][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내 물건을 좋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고...][이 공간을 정말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만 찾아올 수 있는 곳이 경리단길이에요.][걷기 힘든 지역이라는 게 오히려 저한테 좋았어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오기 쉽지 않죠.]

- 독특한 개성을 용인해 주는 분위기

의미단위: [내가 뭘 해도 다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인가 같아요.][자유롭고, 터치하는 사람 없고, 옷을 아무렇게나 입어도 상관없고][개를 끌고 들어와도 괜찮고][갤러리에 누가 개를 끌고 들어와요. 그런데 여기에선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처음엔 저도 모험이었죠. 그런데 이태원이니 까 먹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내가 하는 일이 아직은 대중적이지 않기 때문에...][한국 사람들은 절크치킨을 잘 모르니까...][이태원 중심가는 이미 너무 상업화되어 있어서 특색 있는 음식점이 들어갈 자리가 별로 없어요.][외국인, 예술가 등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대해 수용이 가능하죠.]

(2) 유입요인 분석 내용 및 해석

창조계급은 독특한 소재, 작품을 창작·생산·보급·배포·향유함으로써 경제 활동을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들이 활동하는 지역은 이러한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한다. 우선 경리단길은 역사적으로 외국인들의 거주비율이 높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새로운 음식을 소개할 수 있는 장소이다. 또한 경리단길의 문화산업 상업시설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창조계급의 독특한 창작물을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작품을 선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창조계급들은 불특정다수의 방문객이 몰려들어 자신의 작업에 방해가 되는 상황을 기피하고, 자신들의 작품활동을 알고 찾아와 주는 이들의 방문을 반기는 모습을 보였다. 경리단길은 녹사평역에서부터 400m 이상 걸어야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불편하며, 따라서 목적성 있는 방문객이 많고 일반방문객은 그 수가 많지 않다. 이러한 경리단길의 물리적 특성은 창조계급들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킨다고 할 수 있다.

5) 지인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소

(1) 구술분석 내용 및 과정

(a) 종합적 주제: 지인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소

(b) 중심주제 및 의미단위

- 지인과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장소

의미단위: [앞집이 이곳에 사무실을 오픈하면서 자기들 혼자만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생기니까.. 들어오길 권유하면서 들어오게 됐어요.][그럼요. 디자인을 하는 분야에는 인프라가 중요해요. 건축가, 디자이너, 사진가, 예술가... 각 프로젝트에 맞게끔 구성해서 프로젝트를 해 나가는데 정말 중요하죠.][원래 RUFxxx도 알고 있었고, 그 행사를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도 있었고...][경리단길은 다른 곳과 다르게 교류가 생기더라구요. 양재는 오히려 디자인사무실이 더 많은데도 서로 교류가 없거든요.][카페를 병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제일 친한 친구가 여기 사니까 자주 놀러왔었고, 그 친구를 통해 이 동네가 굉장히 재미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2) 유입요인 분석 내용 및 해석

사무실 밀집지역이 아닌 이태원2동에 사무실을 오픈하는 데에는 주변 지인들의 소개와 추천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즉, 변화 초기에 먼저 경리단길에 자리를 잡은 창조계급, 특히 디자이너 및 건축가 집단과 예술가 집단이 형성한 네트워크는 또 다른 창조계급을 경리단길로 유입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가 자신들의 창작활동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여 소통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서로간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2. 창조계급 행태에 기반한 문화경관 특성

1) 창의성 증진을 위한 소통의 공간

(1) 구술분석 내용 및 과정

(a) 종합적 주제: 창의성 증진을 위한 소통의 공간

(b) 중심주제 및 의미단위

-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을 위한 공간

의미단위: [테라스 공간은 마케팅을 위한 것도 있지만, 소통을 위해서 이기도 해요. 카페라기보다는 휴식공간...이 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해요.][제가 미팅을 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해서 만든 것도 있어요.][이 공간을 이렇게 튼 것은 다양한 소통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예요...테이블전시라고 해서...월드컵 기간에 같이 경기를 보며 즐기기도 했고...][오픈하고 일 년 동안은 거의 유흥을 위해 쓴 것 같은데요. 친구들이 우리 샵에 와서 전시코 하고 했어요.][이 테이블 공간도 소통을 위해 만든 것이기도 해요.][다른 디자이너 분들과 이야기도 하고, 영화도 보고, 와인파티도 하고 그래요.][여기는 소통의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친구들이 놀러오면 같이 이야기도 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싶어서 이 카페공간을 만들었어요.][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 개방성 추구를 통한 외부 환경과의 소통

의미단위: [2, 3층에 박혀 있는 느낌은 싫어서... 원래 여기는 다 막혀 있었어요. 90도로 열리는 유리창을 만들어서...][요즘에야 주말에 차들이 많이 다니고 하지만... 이렇게 창을 다 열어놓고 공기를 쐬면서 여유를 즐길 수 있잖아요.][경리단길처럼 오르막길로 되어 있어서 조망하기 좋은 곳도 흔하지 않아요. 그런 자연환경을 최대한 느낄 수 있게 하려고 했죠. 그게 또 작업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구요. 우린 여기서 회의도 하고 그래요.]

(2) 문화경관 특성 분석 내용 및 해석

창조계급의 유입요인 중 하나인 '지인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소'라는 특징은 자신들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창조계급은 자신들의 공간이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위한 '소통'의 창구로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간을 개조하여 테라스 공간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다. 이는 음식점, 카페와 같은 업종에서 뿐만 아니라, 꽃집, 디자인사무소 등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Figure 10 참조). 더 나아가 사무실 공간 전면을 카페공간으로 개조하여 지인들이 많이 찾아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투영하기도 한다. 또한 이들은 공간의 개방성을 추구한다(Figure 11 참조).

테라스 공간은 경리단길이 '도시의 혼잡스러움과 경리된 듯한 호젓한 분위기'를 갖게 한다. 또한 테라스 공간에 정원을 조성하거나 남산을 조망할 수 있도록 큰 창을 설치하여 작업공간

Figure 10. Bailey

Figure 11. Strike design

Source: <http://www.strike-design.com/>

Figure 12. Take out drawing

Source: <http://blog.hani.co.kr/bonbon/43220>

내에서도 자연환경이 공존하는 경리단길의 분위기를 느끼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통해 규범적인 사무공간, 음식점 공간, 작업공간이라는 틀에서 탈피하여 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있다(Figure 12 참조). 이들은 '소통'의 공간을 조성하여 자신들의 창의성을 증진하고자 한다.

2) 일시적이며 유연한 공간의 활용

(1) 구술분석 내용 및 과정

(a) 종합적 주제: 일시적이며 유연한 공간의 활용

(b) 중심주제 및 의미단위

- 정기적인 행사를 개최하여 일시적으로 공공공간을 점유하는 행태

의미단위: [320카페와 옆 가게 어르신들께 잠시 양해를 구하고 넓지 않게 요 앞 공간에서 했어요...지금은 점점 범위가 커지고 있어서 걱정이예요. 아직은 장소가 협소해서 15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어요.][돛자리와 함께 공간을 연결해서 하루 동안 열고 있어요.]

- 시설 앞 보도 및 도로까지 자유롭게 활용하는 행태

의미단위: [사람들이 다들 맥주 컵을 들고 밖으로 나와서 길에서 마셔요.][거긴 한국 같지가 않아요.][차 위를 테이블처럼 쓰고...][가게 안이 꽉 차기 시작하면 밖에서...]

(2) 문화경관 특성 분석 내용 및 해석

창조계급은 자신들의 작업과는 별개의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인다. '돛자리'디자인사무실에서 개최하는 '돛페기벼룩시장'은 매달 한 번씩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돛자리'의 디자이너가 예술가 및 디자이너 친구들이 선보이고 싶어 하는 물건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친구들과 함께 벼룩시장을 개최했던 것이 규모가 커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매달 SNS를 통해 추천한 15명 정도의 참가자가 참여하게 되는데, 이는 '돛자리'디자인 사무실의 내·외부 공간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규모이다. 따라서 이들은 토요일 오전에는 장사를 하지 않는 주변 가게에 협조를 요청한 뒤, 주변가게의 외부 공간 등을 일시적으로 점유하여 벼룩시장을 개최한다. 이러한 일시적인 공간의 활용은 창조계급들이 한정된 공간을 벗어나, 다양하고 창의적

Figure 13. Seoul salon

Source: <http://mrsense.tistory.com/2929>

Figure 14. Dottegi flea market held by Dozzari design office

Source: ko-kr.facebook.com

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Figure 14 참조).

한편, 위와 같은 일시적인 공간의 활용은 에스닉푸드 음식점 운영집단이 운영하는 상업시설의 경우에도 보인다. 앞서 '개방성 추구를 통한 외부 환경과의 소통'에서 언급한 개방성 있는 공간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경우 음식점 시설의 경계를 넘어 시설 앞 보도 및 도로까지 자유롭게 점유하는 행태를 보인다. 경리단길을 방문하는 방문객 또한 경리단길의 일시적이며 유연한 공간을 만드는 변화의 한 주체라고 하겠다(Figure 13 참조). 이는 좁은 보도와 골목길로 구성된 경리단길의 물리적인 특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리단길만의 독특한 문화경관이라고 볼 수 있다.

3) 정체성 및 취향의 표현

(1) 구술분석 내용 및 과정

(a) 종합적 주제: 자신의 정체성 및 취향의 표현

(b) 중심주제 및 의미단위

- 내 정체성에 대한 표현

의미단위: [우리 어렸을 때는 선물의 집이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 가면 정말 다양한 물건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 찾는 장소를 해보고 싶었던 거죠.][뭔가 다른 것을 해야겠다는 간절함이 있었어요.][내가 원색을 좋아해요. 원색을 보면 마음이 밝아진다고 해야 되나...][우리가 다 디자인을 해 보자. 우리가 디자인을 했을 때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쳐질지도 궁금하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거예요.][내가 독특해요. 어렸을 때부터 개성 있는 것, 튀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재밌게 하고 싶었어요.]

- 내가 좋아해서 수집한 물건들의 전시, 공유

의미단위: [저건 저분이 뉴욕에서 있으면서부터 좋아하는 걸 모아서 전시해 놓은 거예요.][제가 원래 몬스터를 좋아했어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걸 가져다 놓은 것들도 있고, 컨셉에 맞게 사다 놓은 것들도 있고...][여기로 자리를 옮기면서 제가 좋아해서 모았던 수집품들을 전부 가지고 와서 꾸미고 진열해 놔어요.][제가 책을 좋아해서 많이 수집하는데...친구들과 공유하면 좋겠더라고요. 여긴 서재 같은 공간인 거죠.][내가 사진찍는 것을 좋아해서...내가 찍은 사진들을 다 걸어 놓은 거예요.]

Figure 15. Túcán

Figure 16. 320café+ design

Figure 17. Monster Cupcakes

(2) 문화경관 특성 분석 내용 및 해석

창조계급은 금전적 이유보다는 자신의 내적 열정 또는 창의적 열의에 의해 창업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Goo, 2005). 이들은 본인들의 독특한 취향이 반영된 생산물을 창작하며, 이러한 독특한 창작물과 어울리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장의 공간 디자인에 관심이 크다. 따라서 시설의 외관에서 자신의 정체성 및 취향을 표출하기 위한 이들의 실험적이며, 다양한 시도를 찾아볼 수 있다(Figure 15 참조). 때로는 매장에 개인 취향의 소장품을 전시하고, 이는 매장 주인의 성격, 취향 등을 방문객에게 전시하는 일종의 '갤러리' 공간이 된다(Figure 16, 17 참조). 이와 같이 창조계급의 취향이 반영된 시설들은 시설마다 각각 독특한 개성과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 이는 경리단길 가로경관의 다양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4) 구분짓기

(1) 구술분석 내용 및 과정

(a) 종합적 주제: 구분짓기

(b) 중심주제 및 의미단위

- 외부로 노출되는 정보의 최소화

의미단위: [우린 홍보를 하진 않아요. 가끔 보면 블로그에 사진 올리고 하는 분들이 있긴 하던데. 왜 그러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사실 여기가 커피를 파는 데인지 사무실인지 하며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요.][상업공간처럼 보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작업하는 공간이니까 너무 흔히 들여다 보이면 좀 그래서...][노골적인 것이 싫어서 간판을 작게 달았어요.][찬란하고 반짝거리는 것은 관심 구걸하고 썬티나는 것 같아서 싫어요.]

- 자신들과 지인들만이 아는 아지트화

의미단위: [우리만의 공간이 생기는 거니까...][아무나 들어오는 건 원하지 않아요.][이 공간을 아끼는 사람만 왔으면...][아무도 몰라요...][우리끼리 있으니까...]

(2) 문화경관 특성 분석 내용 및 해석

'소통'은 창조계급에게 창의성의 원천이지만,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익명의 대중과 소통을 원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소통의 공간은 대부분 지인들 및 관련업종 종사자들과의 영역 안에 있다. 그리고 그곳에는 불특정 대중의 방문을 여과하는 장치가

Figure 18. ?(nameless) Figure 19. Chang Jin-woo Restaurant Source: <http://blog.naver.com/dcpide/100127252691>

존재한다. 매우 작은 간판 설치(혹은 간판이 아예 없음)(Figure 18, 19 참조), 공간의 용도를 알기 어렵게 한 장소(카페 공간임을 감추려는 시도), 골목길 깊숙한 주택가에 자리를 잡은 입지 행태(Figure 20 참조) 등이 그것이다.

창조계급이 운영하는 시설들은 사전에 정확한 위치를 모르 고서는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골목 구석구석에 위치한다. 이는 일반 대중은 선뜻 방문하기가 꺼려지도록 만든 장치이다. 때문에 경리단길을 처음 방문한 이들이 경리단길 변화의 양상을 한 눈에 인지하기가 어려우며, '아는 사람만 아는' 아지트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창조계급이 독특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 들만의 구분짓기를 함을 알 수 있다.

5) 기존 시설의 적극적 활용

(1) 구술분석 내용 및 과정

(a) 종합적 주제: 기존 시설의 적극적 활용

(b) 중심주제 및 의미단위

- 기존 시설의 적극적 활용

의미단위:[원래 있던 것을 활용해서 디자인한 거예요.]

[앞에 문 같은 것들은 기존 것 그대로에 칠만 새로 한 거예요.]

(2) 문화경관 특성 분석 내용 및 해석

이태원2동은 70년대 건축물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건축물의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었으며, 건축자 재 또한 오래된 것들이다. 많은 창조계급들은 이러한 노후화 된 기존 건축물의 실·내외 구조를 활용하여 작업공간을 디자인하는 경향을 보였다. 때문에 기존의 노후한 시설의 리모델링 은 경리단길의 새로운 문화경관을 형성하는 특성 중 하나이다

Figure 21. RUFxxx Source: nightlifeexchange.vice.com Figure 22. Take out Drawing Source: <http://blog.naver.com/hhh333h/70138036189> Figure 23. Dozzari

(Figure 21, 22, 23 참조).

이는 경리단길의 장소적 맥락을 유지하게 하며, 역사적 층위가 쌓인 경리단길 만의 고유의 경관 특성을 형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경관은 저렴한 비용으로 공간을 개조하여 자유롭고, 활동적으로 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창조계급의 의도가 반영되고, 독특하고 마무리가 덜 된 특색을 지닌 넓은 공간을 선호하는 창조계급의 성향(Florida, 2002)을 반영한다.

V. 논의

본 연구에서는 급격한 상권 변화를 겪고 있는 경리단길의 경관 및 문화 변동의 중심에 창조계급이 있음을 밝히고, 심층인터뷰를 통해 이들이 유입된 과정, 유입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이들의 활동을 통해 형성되고 있는 경리단길의 문화경관 특성을 분석하였다. 창조계급이 경리단길의 유입되는 요인으로서는 저렴한 임대료에 비해 이슈화되고 있는 지역,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 도시의 혼잡스러움과는 격리된 듯한 호젓한 분위기, 자신이 좋아하는 개성 있는 소재를 시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장소, 지인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소라는 5가지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Florida(2004)는 창조계급이 집적하는 도시의 특징으로 유연한 생활양식, 사회적 상호작용, 다양성, 진정성, 독자성, 지역의 질 등을 지목하였는데, 이는 경리단길이 창조계급이 유입되고 있는 여타의 지역들과 같은 맥락의 특징들을 보유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금전적 기반이 약한 창조계급은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저렴한 지가의 지역인 동시에 다른 지역과는 달리 경리단길 만이 가진 독특한 개성은 창조계급이 이 곳에 자리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용산공원 조성 계획과 점차 늘어나는 방문객들로 인해 이 지역의 지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많은 창조계급들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리단길은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이 불편하다는 점, 경사로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최고고도제한지구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규모 상업건물의 유입이 적다. 이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심화로 인한 기존 상권의 몰개성화와 획일화 현상을 완화시켰고, 향후 경리단길이 기존의 오래된 건물들을 유지하며, 독특한 경관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지역의 잠재적 가능성을 나타낸다.

창조계급의 유입을 통하여 형성되고 있는 문화경관의 특성으로는 창의성 증진을 위한 소통의 공간, 일시적이며, 유연한 공간의 활용, 정체성 및 취향의 표현, 구분짓기, 기존 시설의 적극적 활용이라는 5가지의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은 과거 경리단길이 갖던 특성들과는 구분되는 것이다. 경리단길의 창조계급은 경관 및 문화의 다양성을 이끌어어나가는 긍정적 변화의

주체이나 경리단길이 지속적으로 다양성을 갖는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재 유입되고 있는 창조계급과 기존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의의를 갖는다. 첫째, 현재 급격한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지역의 현황을 고찰하고, 그 변화과정을 주도하고 있는 주체인 '창조계급'을 드러냄으로써 경리단길 문화경관이 형성되고 있는 양상을 밝혀냈다. 둘째, 문화경관 형성의 양상을 연구함에 있어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경관을 관찰하는 방식이 아닌 심층인터뷰의 연구방법을 선택하여, 공간을 실제로 운영하고 이용하는 주체들이 자신들의 공간을 이용하는 활동 방식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경관의 내면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셋째, 문화산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고찰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자생적으로 문화산업이 집적하여 나타나는 실제의 대상지를 연구함으로써 실증적인 유입요인 및 지역의 변화양상을 밝혀내었다. 이는 향후 특정지역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조계급의 유입 가능성 고찰하거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개발 연구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인용문헌

- Chey, Kee-jo(2010) An empiric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reative class and the regional growth,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26(3), 3-24.
- Cho, Hyun-ji(2013) A Study for Temporary Use of Urban Space Focused on Collaborative Design: The Case of Bogwang-dong, Yongsan-gu,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Cho, Young-dal(2005)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Seoul: Kyo-yookbook.
- Florida, Richard L.(2002)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 and How It's Transforming Work, Leisure, Community and Everyday Life, New York: Basic Books.
- Florida, Richard L.(2004) Cities and the Creative Class, New York: London : Routledge.
- Georges, Poussin and Alexander Schischlik(2006) Cultural Industries, Paris: UNESCO.
- Han, Sung-mi(2010) Cultural-Psychological Analysis of the Formation of Sense of Place in Minority Groups : Focused on Tapgol · Jongmyo Park and Yenbyen Street, Ph. 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Howkins, John(2001) The Creative Economy, London: Berkley Pub Group.
- Jung, Sang-Chul(2012) Necessity and Strategies of Cultural Service R&D, Seoul: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Ki, Jung-Hoon and Kune-Sook Hur(2009) A statistical analysis of formation and growth of human capital agglomerating cities - A quasi-experimental besign-based inter-urban group comparative study, Journal of the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22(2), 31-56.
- Kim, Cheon-Kwuan and Hye-Young Na(2011) Museum and urban development: An analysis for location factors of museum as a catalyst for urban development,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23(1), 117-146.
- Kim, Hee-Jung(2010) Study on Cultural Values and Economic Effects of Creative Retail Shops : Focused on Bukchon in Korea, Ma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Kim, Hong-Jung(2008) The landscape at Alley and Nostalgia, Economy and Society, -(), 139-168.
- Kim, Hyo-Jung(2012) The Cultural Industry Policy for Cultural Diversity, Seoul: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Kim, Joon-Hong(2012) Critical review of a creative city thesis for Korean urban cultural policy: A focus on the locational preference of the Korean creative class, The Journal of Cultural Policy 26(1), 31-51.
- Kim, Min-woo(2013) Interpreting Cultural Landscape of Specialized Atreet: A Case Study of Garosugil, Sinsa-dong, Seoul, Ma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Kim, Pil-Soo(2013) Characteristics and issues of cultural industry, Hyundai Research Institute 519, 1-20.
- Goo, Moon Mo(2005) An analysis on the economic performance of creative industry and clustering in Seoul,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17(4): 197-223.
- Kvale, Steinar(1996) Interviews : An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Interviewing, Thousand Oaks, Calif.: Sage Publications
- Kwon, Yoon Ku(2013) The Formation Structure and Meaning of the Sense of Place on Urban Streets-Research on Insa-dong and Daehak-ro Within the Framework of Mixed-Methods, Ph. 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Lee, Hee-yeon and Eun-jung Hwang(2008) Clustering of the creative industry and the distributional characteristics of its value chain in Seoul,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58(-), 71-93.
- Lee, Se-jin(2011) The Interpretation of Pattern in Cultural Landscape around Hongdae Area, Ma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Lee, Suan(2011) Cafe as hybrid spaces and cultural scapes of nomadic subjects, Culture and Society 10(-), 34-66.
- Park, Ji Nam(2012) Leisure-Alone Folk: Pleasure of Pursuing Individuality or Change of Community, Ma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Ryu, Jung-A(2012) Study of Regional Culture Policy and Regional Vitalization, Seoul: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Seoul Museum of History(2010) Itaewon: Space and Life, Seoul: Seoul Museum of History.
- Song, Hee-young(2010) Cities and the creative class, Academic Association of Global Cultural Contents 5(-), 311-315.
- Yang, Hee-eun, Si-beom Yoo, Hyun-joo Lee and Kyung-jin Zoh (2012) Mosaic street, Kyunglidan-gil, placemaking process and community Engagement, Paper presented at the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Pacific Rim Community Design Network, Seoul, Korea.

원 고 접 수 일: 2013년 10월 23일
심 사 일: 2013년 12월 18일(1차)
게 재 확 정 일: 2013년 12월 18일
3 인 의 명 심 사 필